

국어 지식 교육의 성격과 국어과 교육의 영역 체계

이병규*

〈 차례 〉

- I. 머리말
- II. 국어 지식 교육의 성격
 - 1. 국어 지식의 교육적 가치
 - 2. 국어 지식의 성격
- III. 국어과의 목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 교육 과정에서의 국어과 교육의 목표
 - 2.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영역 체계
- IV. 국어 지식 영역의 목표와 국어과 영역 체계
 - 1. 국어 지식 영역의 목표
 - 2. 국어과의 본질적인 목표
 - 3. 국어과의 영역 체계
- V. 맺음말

I. 머리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배경으로 하는 제4차 교육 과정을 제외한 제1차~제3차, 제5차~제7차 교육 과정에서 국어과의 본질적인(상위) 목표는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이다. 제1차~제3차까지는 문서상으로는 국어과

* 국립국어연구원

의 성격을 국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키는 교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실제에서는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했다. 따라서 교육 과정 상의 목표와 실제 사이의 괴리가 매우 컸다.

제5차~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이라는 국어과의 본질적인 목표와 실제 사이의 간격이 제1차~제3차에 비하면 많이 좁혀졌지만 여전히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 특히, 교육 과정 내에서도 국어과의 상위 목표와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된 전문, 3개의 하위 항목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으며, 상위 목표와 국어과의 내용 영역 사이에도 그러한 점이 발견된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국어과의 본질적인 목표는 국어 사용 기능 즉, 듣기·말하기·읽기·쓰기 기능 신장에 두고 있지만 교육 과정 상의 실제 목표는 이와 기본적으로는 방향을 달리한다. 즉 언어와 문학의 본질에 대한 총체적 이해, 국어 문화에 대한 이해,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학습, 언어 현상에 대한 탐구 등을 포함시켜 묶으로써 상위 목표와 실제 목표, 내용 영역 사이에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 과정 상의 국어과의 내용 영역에서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언어), 문학 여섯 개의 영역을 대등하게 제시해 놓음으로써 상위 목표와 일관되지 않는 구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 결과 저학년(초등학교)에서는 국어 사용 기능 교육에 중점을, 중·고학년(중등,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지식이나 문학 지식 교육을 강조하는 문화 교육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학습 내용 조직과 그것이 구현된 교과서 편찬도 자연적으로 이러한 방향을 지향하게 되었다.

국어과 교육의 이러한 상황은 국어과 교육의 정체성에 혼란을 낳고 있다. 국어과 교육의 정체성 확립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어과 교육을 위해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어과의 상위 목표와 교육 과정에서 실제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목표, 내용 영역, 학습 내용, 교과서 등에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재의

국어과 상위 목표에 부합하도록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실제 목표, 내용 영역, 학습 내용,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실제 목표, 내용 영역, 학습 내용, 교과서의 방향에 맞게 국어과의 상위 목표를 고치는 것이다. 후자가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이 글은 국어 지식 교육의 국어과 교육적 가치와 성격을 밝혀 이를 후자가 타당한 근거로 제시한다. 그리고 국어과 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본질적인 목표로서의 상위 목표와 내용 영역 체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도록 한다.

II. 국어 지식 교육의 성격

국어과 교육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있어 논란이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국어 지식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국어 지식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어 지식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1. 국어 지식의 교육적 가치

국어 지식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 같다. 문제는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이 본질적인 목표인 국어과 교육에서 가치가 있느냐이다.

국어 지식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관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국어 지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어과 교육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어 지식은 국어 사용 기능 신장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어 사용 기능 신장에 기여하는 지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국어과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어 사용 기능 신장에 기여하는 경우는 국어 지식을 사용 기능과 관

런지어 지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첫 번째 관점은 국어 지식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무용론, 두 번째는 통합론 또는 기반 지식론, 세 번째는 독자론, 네 번째는 포괄론, 상호보완론 또는 절충론으로 불린다.¹⁾

이들 중 무용론의 관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나머지 세 입장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기반 지식론은 국어 사용 기능 신장에 기반이 되는 지식에 국한해서 국어과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어 지식 교육의 가치, 성격, 목표, 내용이 국어과의 상위 목표에 부합한다. 따라서 국어과의 목표, 내용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어 사용에 기반이 되는 지식과 그렇지 않은 지식을 어떻게 구분해서 제시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기반 지식의 관점을 나타내는 최영환(1995: 198~200)에서는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를 언어학의 체계에 따라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독자론의 권재일(1995)에서 제시한 내용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번째 문제는 최근 국어과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어 문화 요소,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요소를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이라는 목표에 통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이 국어과에서 배제되어 국어과 교육의 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 국어 지식을 배제하게 된다.

독자론은 국어 사용 기능 신장 여부와 관계없이 소중한 가치가 있는 국어 지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어과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자적인 관점은 국어학(언어학)적 체계에 따라 구성한 내용이 '국어 사용

1) 기반 지식론에는 손영애(1986), 최영환(1995)이 있다. 이 두 논의는 국어 지식이 국어 사용 기능의 기반 지식이 될 때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중심이 기능이나 국어 지식이나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기능 우위 기반 지식론', 후자는 '지식 우위 기반 지식론'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자론으로는 권재일(1995)이 있으며 포괄론에는 이성영(1995), 김광해(1997/2001)가 있다. 각 논의에 대해서는 이병규(2002)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기능 신장'이라는 목표에 통합되기 어려운 면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어 사용의 기반 지식으로서의 국어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 탐구적 요소 등이 국어과 교육적 가치가 있다면 이러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국어 지식 영역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표가 국어과의 목표와 일맥상통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를 국어과에 수용하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국어 지식 영역은 물론 국어과의 교과 교육적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다.

포괄론은 국어교육의 하위 영역을 기능, 문학, 언어로 가르친다고 전제할 때, '국어' 과목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만한 내용들이지만 기능 영역이나 문학 영역에 속하기 어려운 나머지 내용들은 대개 국어 지식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기능 영역과 국어 지식 영역의 공통 분모를 최대화하여 국어 사용 기능에 기반이 되는 국어 지식은 국어 사용 기능과 관련시켜 지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독자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모든 국어 지식을 국어학적 관점에서 그 자체로 지도하자는 독자론과의 차이이다.

포괄론에서는 국어과의 내용 영역이 기능, 문학, 국어 지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영역 구분이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이라는 상위 목표와 모순이 되지는 않는지 또 포괄론의 영역 구분에 맞는 국어과의 상위 목표를 다시 설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 없이 기능 영역, 국어 지식 영역, 문학 영역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별개의 필요성과 목표를 존립 기반으로 하는 영역이 한 교과에 통합되어 있어 국어과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한다.

포괄론의 또 다른 문제는 앞의 두 경우와 지도 내용 구성 방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포괄론의 국어 지식 영역의 학습 내용 체계(김광해, 1997/2001: 103)>

• 우리말 알기

- 언어 규범: 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 한자)

- 언어 일반: 언어의 본질, 언어와 사고, 언어 현상, 언어와 국어
- 국어 문화: 국어의 특질, 우리말의 역사, 한글의 역사 및 가치, 우리말을 빛낸 인물
- 국어 탐구: 말소리, 형태소, 단어, 품사, 어휘, 문장(문법 요소), 의미, 이야기
- 우리말 가꾸기
 - 바른 언어 생활: 정확한 단어 구사, 정확한 문장 구사, 논리적인 텍스트 생산
 - 풍부한 언어 생활 국어 사랑의 태도: 풍부한 어휘 구사, 어휘력 증진의 방법, 국어 문제의 인식, 국어 발전을 향한 정신

<독자론의 국어 지식 영역의 학습 내용 체계(권재일, 1995: 169~172)>

- 언어의 이해: 언어의 본질, 언어와 인간, 국어의 특질, 국어 연구의 발전
- 국어의 역사와 문자: 국어의 계통, 국어의 역사, 국어의 문자
- 현대 국어의 구조: 음운, 단어, 문장, 의미, 담화
- 국어의 올바른 사용: 국어의 규범, 올바른 국어 사용, 국어의 앞날

<기본 지식론의 국어 지식 영역의 학습 내용 체계(최영환, 1995: 198)>

- 언어 구조에 대한 지식:
 - 음운과 문자: 음성과 음운, 국어 음운의 체계, 음절, 음운의 변동
 - 단어: 단어의 개념, 단어의 분류와 특성, 단어의 구조, 단어의 의미와 의미 관계, 단어 의미의 변화
 - 문장: 문장의 개념, 문장의 구성, 문장의 종류, 어순, 문자의 확대, 문장 종결, 격, 대우 표현, 시간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 부정 표현, 비교 표현
 - 담화: 담화의 요소, 지시와 대응, 전제와 함축, 담화의 의미 관계
- 언어의 본질과 사용에 대한 지식
 - 언어의 본질: 언어의 체계, 언어 기호의 특성, 언어의 기능,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비언어적 의사 소통
 - 언어와 인간: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 언어 습득과 발달
 - 국어의 사용 표준어와 맞춤법: 언어 정책, 국어의 특질, 국어의 역사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목표와 교육적 가치를 달리하는 세 관점의 내용 체계는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 국어학적, 언어학적 체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다만 체계의 위계나 내용 구성의 순서에서 다소 차이가 날 뿐이다.²⁾

이처럼 국어 지식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국어과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국어 지식 영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국어 지식 영역의 교육적 가치와 국어과의 목표와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국어 지식의 성격

국어 지식이 국어과에서 교육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 다루어진다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해야 국어 지식 영역의 설정 여부, 나아가 국어과 교육의 상위 목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국어 지식의 성격을 규명하여 국어과 교육에의 통합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국어 지식은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을 위한 지식 기반이 되고,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능력 신장을 위한 대상이 되며, 국어 지식 자체가 국어 문화유산이 되기도 하고, 한국인의 정신세계 형성 수단이 되기도 한다.³⁾

국어 문화유산이나 한국인의 정신세계 형성 수단으로 기능하는 국어 지식을 교육하는 목적은 국어 순화, 국어를 사랑하는 마음, 국어 문화 창조,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길러 주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주어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해 준다.⁴⁾ 이와 같은 언어의 문화

2) 이병규(준비중)에서는 국어 사용의 기반이 되는 국어 지식은 학습자 말뭉치(learners' corpus) 분석을 통해 각 발달 단계별 국어 사용의 모습을 밝히고 오류 유형과 오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내용이 선정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3) 국어 지식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병규(2002-) 참고

4) 이 글에서는 '한국말, 한국 문자' 자체를 국어 문화의 하나로 본다. 한국어의 과학성, 우

적·이데올로기적 특성 때문에 태도 교육이 중요하다.⁵⁾ 그런데 민족의 문화 유산이나 한국인의 정신세계 형성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국어 지식은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을 본질적인 목표로 하는 국어과에서는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

태도적인 측면, 즉 정의적인 측면은 인지적인 측면 못지않게 중요하다. 국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정의적인 측면의 태도이지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국어 사용 기능)의 기반 지식이 되지는 않는다. 정의적인 측면이 인지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국어 지식은 국어 사용 기능과 관련된 정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데 문제⁶⁾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한편,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을 위한 지식 기반으로서의 성격과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목표로서의 성격은 인지적인 면과 관련된다.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을 위한 지식 기반으로 기능하는 국어 지식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위한 토대가 된다. 정확하고 유창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국어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라면서 자동적으로 국어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 자 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큰 불편을 겪지 않는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국어 지식의 교육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국어 지식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

구성, 체제성 등을 통해 국어를 사랑하는 마음, 국어 순화,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 줄 수 있다. 또 언어와 사회, 언어와 사고는 밀접한 관련을 가져 공동체 구성원에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주어 정체성을 느끼도록 해 준다. 따라서 한국인, 한국 사회에는 한국어가 사회와 민족의 통합 구실을 한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표현·이해 기능이나 문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 내용들은 국어 지식 영역 고유의 것이 된다.

- 5) 최명옥(2003)에 따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한글이나 국어 사랑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기되기도 했다.
- 6) 이러한 내용들이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이 본질적인 목표인 국어과에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관련성이 밝혀져야 한다.

게 되었다. 그러나 양태식·김정수(2004), 이병규(준비중)에서는 초등 학생들의 접속 부사와 접받침 낱말의 정확한 사용에 문제가 많음이 일기 조사 결과 밝혀졌고, 국립국어원의 각종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⁷⁾는 국민들의 정확한 국어 사용에 문제가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대상으로서의 국어 지식 교육에 대해서는 제7차 교육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다. 국어 현상을 탐구하여 국어에 내재해 있는 질서를 발견하고 이를 국어 사용에 활용함으로써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탐구 활동을 통해 발견한 지식은 교사에 의해 주입되는 지식보다 훨씬 내면화하기 쉽다. 이뿐만 아니라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고등 사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활동의 목적은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즉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그러한 목적은 오히려 탐구 활동의 부수적인 것이다. 탐구 활동의 목표는 국어 지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발견해 내는 과정에 초점이 놓여 있다. 국어 지식 자체는 객관적이지 못한 것도 있고,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것도 있으며, 체계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탐구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또 학습자의 발달 단계별로 탐구해야 할 국어 지식의 종류도 같지 않다.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활동의 본질적인 목적은 탐구 과정을 통해 국어 지식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능력을 길러,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능력을 높이고 국어 정보화의 기반 지식이 되는 국어 지식을 찾아내는 소양을 길러 주는 데 있다. 이러한 능력과 소양의 함양을 통해 나아가 국어와 국어 문화의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규명하여 국가의 정체성과 민

7)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국민들의 국어 사용 실태 보고서 실용문 실태 연구(2003), 어문 규범준수실태조사(Ⅰ)(2000)~(Ⅳ)(2004), 초등 학생의 글쓰기 실태 조사와 능력 신장 방안 연구(2003), 국정연설문의 실태(2003), 제품 설명서의 문장 실태 연구 1(2002), 제품 설명서의 문장 실태 연구2(2003),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2001),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2002) 등에서는 국어 지식이 바른 국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족의 유대감을 공유할 수 있다. 국어 지식의 이러한 성격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는 제7차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도 부합한다.⁸⁾

Ⅲ. 국어과의 목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앞에서 국어 지식의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을 위한 지식 기반,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능력 신장을 위한 대상, 국어 문화유산, 한국인의 정신세계 형성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성격을 나타내는 국어 지식이 국어과의 교수·학습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어과의 교과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1. 교육 과정에서의 국어과 교육의 목표

제4차 국어과 교육 과정을 제외하면 현행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까지 국어과의 본질적인 목표는 '(창의적인) 국어(언어) 사용 기능 신장'이며, '고등 정신 기능(사고력) 신장'이다. 국어과의 상위 목표가 '창의적인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이라는 것은 국어과 교육 과정 해설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6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 해설(27쪽)에 따르면, 제5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 사용 기능의 신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6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도 "교육 과정에 대한 특징 이론에 구속받지 않고,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이라는 국어과 교육의 본질 추구를 상위 목표로 하여 여러 가지 이론들을 국어과 교육의 실정에 맞게 통합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제6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 해설,

8) 국어 지식 교육과 국어정보화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병규(2002ㄱ: 228~239, 2002ㄴ: 114~117) 참고.

40쪽)라고 밝히고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도 “제7차 교육 과정은 제6차 교육 과정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국어과 교육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중략) 제7차 교육 과정은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이것이 발전 지향적인 국어 문화의 창조에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국어과의 ‘성격’을 규정하였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제7차 초등 학교 교육 과정 해설(Ⅲ), 9~10쪽)

이처럼 국어과 교육 과정 해설서에는 국어과의 상위 목표를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제5차, 제6차, 제7차 교육 과정에서 실제적인 국어과 목표로 제시한 전문과 세 개의 하위 항목은 이와 모순되는 점이 발견된다.

<제5차 교육 과정의 국어과 교육의 목표(문교부, 1987: 42)>

전문: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를 소중히 여기게 한다.

- 1)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표현하고 이해하게 한다.
- 2) 국어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한다.
- 3)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아름다운 정서를 기르게 한다.

<제6차 교육 과정의 국어과 교육의 목표(교육부, 1992: 47)>

전문: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를 소중히 여기게 한다.

- 가.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표현하고 이해하게 한다.
- 나. 국어에 관한 초보적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한다.
- 다.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아름다운 정서와 풍부한 상상력을 기르게 한다.

<제7차 교육 과정의 국어과 교육의 목표(교육부(1998: 29)>

전문: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

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5차, 제6차 교육 과정의 국어과 목표에서는 국어 지식 교육과 관련된 목표, 문학 교육과 관련된 목표는 국어 사용 교육과 관련된 목표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이질적인 것이 '창의적인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이라는 본질적인 목표 아래 묶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제7차 교육 과정 국어과 목표의 전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언어 활동, 언어,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에서 국어 사용 영역, 국어 지식 영역, 문학 영역이 대등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이전의 교육 과정들과는 달리 하위 목표에서는 국어 지식 영역과 문학 영역을 국어 사용 기능 영역과 대등하게 기술해 놓은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것으로 기술해 놓았다. 즉 '가'의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언어 활동, 언어, 문학에 대한 지식은,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습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어 지식 영역과 문학 영역은 국어 사용 기능 영역에 종속된 것이다. 또 '나'의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역시 문학 활동을 표현과 이해 활동의 하나로 보고 문학 작품 역시 표현과 이해 활동의 자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문학 영역을 국어 사용 기능 영역과 대등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처럼 '국어 사용 기능 영역', '국어 지식 영역', '문학 영역'을 대등하게 취급한 전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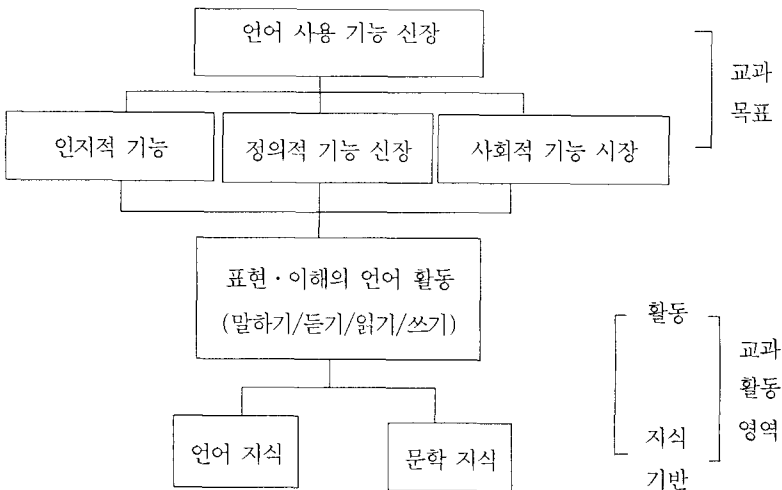
뒤의 둘을 '국어 사용 기능 영역'에 종속되는 것으로 다룬 하위 목표 사이에는 모순을 일으킨다.

세 번째 항목은 국어 사용 기능 신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국어과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처럼 제5차, 제6차, 제7차 교육 과정의 국어과의 목표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국어과의 본질적인 목표와 모순을 일으킨다.

2.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영역 체계

다음은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영역 체계에서 국어 지식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를 해 보자. '국어 사용 기능 신장'에 지식 기반이 되는 경우만 국어과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면 국어과 교과 목표와 영역 체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영역 체계(노명완, 1988: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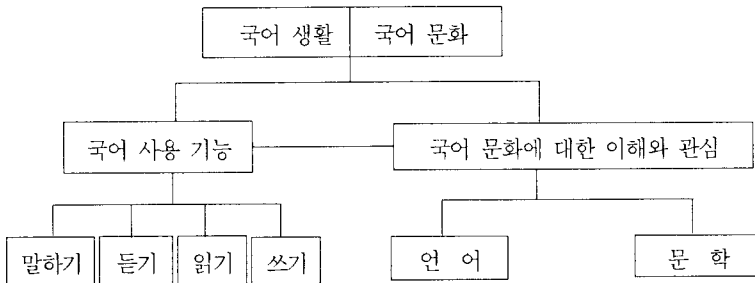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어 지식은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의 지식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국어과 교육의 상위 목표에 부합하는 국어 지식은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을 위해 필요한 것에 국한한다.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활동을 통해 탐구력도 신장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지식을 국어 사용의 기반 지식으로 활용한다면 두 번째의 경우도 그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탐구 활동의 결과가 모두 지식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어 사용에 필요한 국어 지식이 모두 탐구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활동이 국어 사용 기능 신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더구나 국어 문화유산, 한국인의 정신세계 형성 수단으로 기능하는 국어 지식의 경우는 국어 사용 기능 신장과는 더욱 무관하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국어 지식은 국어과에서 배제된다.

이 체계는 노명완 외(1988: 33)에서 국어과 교육 영역의 복합성과 난체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어과 교육의 목표를 학생들의 '언어 사용 기능 신장'에 두고 이 단일 목표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교과 내용 영역을 체계화한 것으로 제5차 교육 과정이 지향한 것이다.(노명완 외, 2003: 95)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 교육 과정 상에 제시된 전문과 하위 목표, 내용 영역은 이러한 체계를 따르고 있지 않다. 또 이 체계는 표현·이해 활동의 지식 기반이 국어 지식과 문학 지식뿐인 것처럼 되어 있다는 점 역시 문제이다.

국어 지식이 국어 사용의 지식 기반뿐만 아니라 탐구 활동의 대상, 문화 유산, 한국인의 정신세계 형성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까지 국어과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면 국어과의 목표와 영역 체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영역 체계>



이 체계9)는 언어와 문학 영역이 국어 사용 기능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대등한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어와 문학에 대한 지식이 국어 사용 기능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점선으로 연결하였다. 그러나 이 체계에서는 국어 사용 기능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상위 목표는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국어 생활과 국어 문화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국어 생활, 국어 문화가 국어 사용 기능이나 국어와 문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불분명하다.

IV. 국어 지식 영역의 목표와 국어과의 영역 체계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을 국어과의 상위 목표로

9) 이 체계는 제5차 국어과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제안된 것으로 본래의 취지는 여기서 해석한 것과 방향이 같지 않다. 위의 점선 부분은 국어 지식과 문학 지식이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의 기반 지식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필자가 넣은 것이다. 점선 부분이 없으면 국어 지식과 문학 지식이 기반 지식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본래의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앞의 그림에서 점선이 없으면 국어 지식, 문학 지식이 국어 사용 기능의 기반 지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면, 내용 체계에서 탐구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활동의 대상, 국어 문화유산, 한국인의 정신세계 형성 수단으로서의 국어 지식은 국어과 교육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이들을 국어과의 내용 체계에 포함하게 되면 국어과의 본질적인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1. 국어 지식 영역의 목표

기본 지식으로서의 국어 지식을 포함하여 국어 지식이 국어과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권재일(1995), 이성영(1995), 김광해(1997/2001), 이관규(2001) 등에서 논의되었다. 그런데 국어 사용의 지식 기반이 되는 국어 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성격의 국어 지식은 ‘국어 사용 기능 신장’, ‘국어 사용 능력 신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것은 다음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어 지식 교육의 필요성 및 목표(김광해, 1997/2001: 42)>

필요성	배양할 능력	목표
1.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하여	• 국어 운용에 필요한 기본 능력 신장	• 적절한 국어 능력을 갖춘 한국인
2. 국어의 이해를 위하여	• 탐구 학습을 통한 사고력 신장	• 문화적 교양을 갖춘 한국인 양성
3. 국어 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 국어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통찰력 신장	• 국어 산업 관련 인력 양성

위 표에서 국어 지식 교육의 목표로 설정된 세 가지 ‘적절한 국어 능력을 갖춘 한국인 양성, 문화적 교양을 갖춘 한국인 양성, 국어 산업 관련 인력 양성’은 국어 지식 영역의 고유한 목표라기보다는 국어과의 일반적인 목표에 가깝다. 또 국어 지식 영역의 목표가 국어과의 상위 목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제7차 교육 과정의 문법 과목의 목표는 전문과 세 개의 하위 항목으

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 국어에 대한 탐구 과정을 통한 통찰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언어와 국어의 문화적 가치 및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가. 언어와 국어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한다.

나. 국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영위한다.

다. 국어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태도를 지닌다.

제7차 교육 과정의 문법 과목의 목표 가운데 '창의적인 국어 사용 기능 신장'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은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여'와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영위한다'이다. 나머지 부분은 이와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약하다.

그러나, '창의적인 국어 사용 기능 신장'과 관련성이 약하지만 문화적·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갖는 국어 지식의 경우도,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을 국어과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노명완 외(2003: 239~247)에서는 태도 교육과 관련시켜 그 국어과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국어 지식은 국어 사용을 위한 지식 기반으로서든 독자적으로든 국어과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어 지식 영역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인지적인 측면

가.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창의적인 고등 사고 능력을 신장하여 국어 정보화 능력을 함양한다.

나. 탐구 활동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국어 구조와 지식을 익혀 한국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 정의적인 측면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국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길러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다.

위의 인지적 측면의 목표와 정의적인 측면의 목표는 창의적인 국어 사용 기능 신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탐구 활동을 통해 국어 구조와 지식을 익히면 정확한 국어 사용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국어 사용 기능 영역에 포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 과정이 이러한 관점을 취해 왔다. 그러나 정확하고 유창한 국어 사용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국어 지식을 학교 교육을 통해 모두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으며 지금까지 일곱 차례 교육 과정이 개정되어 왔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다. 모어 화자들은 성장하면서 또래 집단이나 가족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정확하고 유창한 국어 사용 능력을 습득한다. 따라서 국어 사용 기능 신장과 관련해서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별 오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단계에서 필요한 국어 지식만 익히면 된다. 국어 지식 영역에서는 정확하고 유창한 국어 사용을 위해 국어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 능력 신장과 한국어의 특성을 이해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어 지식 영역의 목표를 포괄할 수 있는 국어과의 본질적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반 지식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에서와 달리 독자론, 포괄론적 관점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목표 구성, 내용 영역 구분, 교과서 구성의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2. 국어과의 본질적인 목표

교과 교육은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교과 교육은 교육의 하위 분야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교육의 목표는 당연히 교육의 목표와 맥을 같이 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교과 교육의 목표는 교육의 목표인 '사고 교육' 또는 '사고력'의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교과 교육의 교육적 보편성이라고 한다. 두 번째 특성은 그 교과 나름의 고유

한 지식이나 기능, 활동을 교육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교과
의 교과적 특수성이라고 한다.

최현섭 외(1996/2001: 33~35)에서는 교과 교육의 목표를 사고 교육
에 둘 것인지 지식 교육에 둘 것인지는 각 교과가 당면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사회과와 수학과를 들고
있는데 두 교과 모두 사고 활동으로서의 사회과 교육과 수학과 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인 사회과
교육, 수학과 교육이 배경 학문의 연구 결과로서 사회과 지식, 수학과 지
식을 강조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어과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4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교육의 하위 영역을 '표현-이해', '언어', '문학' 셋으로 설
정하고 국어교육의 목표를 이 세 영역의 배경 학문의 지식을 학습하는
것에 두었다. 그러나 제5차, 제6차, 제7차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
기와 같은 언어 활동에 따른 언어적 사고력(언어적 고등 정신 기능) 교육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처럼 각 교과는 교과적 특수성으로서의 교과의 고유한 지식, 기능,
활동을 통하여 교육적 보편성으로서의 사고 교육을 신장하는 데 교과의
목표를 두고 있다.¹⁰⁾ 교육 과정의 각 교과 목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처럼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능력', '자연의
탐구를 통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 '음악 활동을 통하여 창의성을
기르고',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
발하며'(제7차 교육 과정 초·중등 학교 교육 과정, 1998 참고) 등은 교육적 보
편성과 교과적 특수성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교육적 보편성은 '사고하는
능력', '탐구하는 능력', '탐구', '창의성', '표현', '감상', '창의성' 등에서 나
타나며 교과적 특수성은 '수학적', '사회 현상', '자연', '음악 활동', '미술
활동' 등에서 나타난다.

10) 이런 관점의 목표는 인지적인 것에 해당한다. 인지적 목표에 기반하여 정의적 목표가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인지적 목표가 교육, 교과의 본질적인 목표라고 하겠다. 인지
적 목표와 정의적 목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국어과 역시 '창의적인 국어 사용 기능 신장' 곧 '언어적 고등 정신 기능 신장'이라는 본질적인 교과 목표에는 '창의', '고등 정신 기능'이라는 교육적 보편성과 '국어 사용 기능', '언어적'이라는 교과적 특수성이 함께 나타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목표는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대상', '국어 문화 유산', '한국인의 정신 세계 형성 도구'가 되는 국어 지식을 포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어과의 본질적인 목표로서의 상위 목표를 '국어 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국어 능력 신장'으로 설정한다.

이것이 국어과의 목표로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어 활동'과 '국어 능력'이 무엇인가가 밝혀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 둘을 '국어 사용 활동을 통한 표현·이해력(국어 사용 능력)',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활동을 통한 탐구력(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능력)', '문학 작품 감상, 창작 활동을 통한 상상력(문학 능력¹¹⁾)'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국어 활동'은 '국어 사용 활동',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활동', '문학 작품 감상, 창작 활동'을 말하며, '국어 능력'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길러지는 '표현·이해력', '탐구력', '상상력' 등과 관련된 사고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즉 국어 능력은, 국어 사용 활동을 통해 길러지는 사고 능력,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활동을 통해 길러지는 사고 능력, 문학 작품의 감상과 창작 활동을 통해 길러지는 사고 능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국어과의 본질적인 목표로서의 국어 능력은 국어 사용 능력,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능력, 문학 능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목표로서의 국어 사용 능력과 그 범위와 내용이 다르다. 이 글에서는 국어 사용 능력을 듣고·말하고·읽고·쓰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전략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의사소통 상황에 필요

11) 우한용(1997:56)에서는 문학 영역의 학습 목표가 문학 능력의 신장에 있다고 보고 문학 능력을 문학을 만들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창작(표현)과 이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어 사용 능력을 구성하는 한 측면으로 보아 여기에 통합할 수 있다. 그러나 비문학적인 글과 문학적인 글이 문학성(예술성-상상력)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면 문학 능력과 국어 사용 능력은 서로 독자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후자의 관점을 취하기로 한다.

한 국어 지식을 익혀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된다. 그러나 국어 사용 능력에 포함되는 국어 지식은 어디까지나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에 국한된다. 한편 국어 능력을 신장하는 데 필요한 국어 지식은 그 범위에 제한이 없다. 국어 사용 능력 신장과 관련된 국어 지식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국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정확하고 유창한 의사소통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 국어 능력 신장과 관련된 국어 지식은,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과 관련되는 국어 지식도 포함되지만 이런 성격의 국어 지식보다는 언어적인 탐구 능력을 신장시켜 국어 지식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정보¹²⁾로 활용할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 필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한 학습은 주로 탐구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언어적 탐구 능력이 신장된다. 언어적 탐구 능력은 국어 사용 능력과 구분되며 국어 사용 능력과 함께 국어 능력을 구성하는 국어적 사고 능력의 하나가 된다. 이처럼 국어 능력(국어적 사고 능력) 신장을 위해 필요한 국어 지식의 성격과 국어 사용 능력에 필요한 국어 지식의 성격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어 능력과 국어 사용 능력이 지시하는 바도 차이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국어과 목표 분석을 통해 국어과는 '창의력' '표현·이해력', '탐구력', '상상력' 등 교육적 보편성으로서의 사고 교육이, 교과적 특수성으로 '국어 활동을 통한 국어 능력 신장'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국어과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보편적 특성은 '창의력', '표현·이해력', '탐구력', '상상력' 신장을 통한 사고 교육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Guilford는 창의적 사고 능력을 '문제에 대한 감수성', '사고의 유연성', '사고의 융통성', '사고의 독창성', '면밀성', '재구성력', '집요성'으로 나누었다. 윤종건(1996)에서는 사고의 유창성을 사고의 속도로, 융통성은 사고의 넓이로, 독창성은 사고의 새로움으로, 면밀성은 사고의 깊이로 설명하여 창의적 사고 능력을 재해석했다. 이러한 여

12) 이병규(2002-)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다루는 능력을 '국어 정보화 능력'이라고 한다.

러 논의를 바탕으로 심영택(2003: 472)에서는 사고력이 창의력을 형성하거나 그 형성 과정에 기본적인 역할 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지적 사고로서의 상상력에는 문학 작품의 감상과 창작 활동을 통해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작용, 심미적 체험이나 정의적 사고로 감정, 정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삼형(2000)에서는 사고의 범주를 두 단계로 재개념화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인지 요인만 다루고 있던 사고 개념에 정의 요인을 도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인지와 정의 요인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결과 인지적 사고와 정의적 사고라는 표현 대신에 인지 중심적 사고와 정의 중심적 사고라고 쓴다. 심영택(2003: 473)에서는 이러한 사고의 재개념화가 '상상력'과 같은 힘과 활동이 무엇이며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고 또는 사고력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은 사고력과 표현·이해력 그리고 탐구력의 관계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사고력 연구의 대표적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성영의 사고 기능의 위계적 분류와 읽기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Barrett의 읽기 기능, 그리고 김광해(1997)의 탐구 과정과 비교한다.

사고기능 (Marzano, 1988)	읽기 기능 (Barrett, 1976)	탐구 과정 (김광해, 1997/2001)
• 초점을 맞추는 기능 -문제 정의하기 -목표 설정하기 • 정보 수집 기능 -관찰하기 -의문 형성하기	① 축어적 재인 및 회상 -세부 내용의 재인 또는 회상 -중심 생각의 재인 또는 회상 -줄거리 재인 또는 회상 -비교의 재인 또는 회상 -인물의 특성에 대한 재인 또는 회상	① 문제의 정의 -문제, 의문 사항의 인식 -문제에 의미 부여 -문제의 처리 방법 모색

• 조직 기능 -비교하기 -분류하기 -순서화하기 -표현하기 • 분석 기능 -속성과 구성 요소 확인하기 -관계와 양상 확인하기 -주제 확인하기 -오류 확인하기 • 생성 기능 -추론하기 -예언하기 -정교화하기 • 통합 기능 -요약하기 -재구조화하기 • 평가 기능 -준거 설정하기 -확증하기	② 재조직 -유목화 -개요 -요약 -종합 ③ 추론 -뒷받침이 되는 세부 내용 추론 -중심 생각 추론 -줄거리 추론 -비교 추론 -원인과 결과의 관계 추론 -인물의 특성 추론 -결과 예측 -비유적 언어 해석 ④ 평가 -현실과 환상의 판단 -사실과 의견의 판단 -정확성과 타당성의 판단 -적설성의 판단 -수용 가능성의 판단 ⑤ 감상 -주제나 구성에 대한 정의적 반응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공감 -자기가 사용한 언어에 대한 반응 -심상	② 가설 설정 -유용한 자료 조사 -추리 -관계 파악 -가설 세우기 ③ 가설의 검증 -증거 수집, 평가 -증거 정리 -증거 분석 ④ 결론 도출 -증거와 가설 사이의 관계 검토 -결론 도출 ⑤ 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 -새로운 자료에 결론 적용 -결과의 일반화 시도
--	---	--

Marzano의 사고 기능과 Barrett의 읽기 기능은 매우 유사한 정신 작용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 사고 기능 이 곧 읽기 기능이고, 또 읽기 기능이 사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물이나 사상을 지각, 개념화, 범주화, 조직화 등의 추상화 과정을 통해 언어로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초점, 수집, 조직, 분석, 생성, 통합, 평가 등의 사고 기능과 회상, 재조직, 추론, 평가, 감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 위의 사고 기능과 읽기 기능에서 보이는 약간의 차이는 누가 더 세분화했고 어떤 언어로 명명하였는가의 차이일 뿐이다.(노명완 외, 2003: 59~6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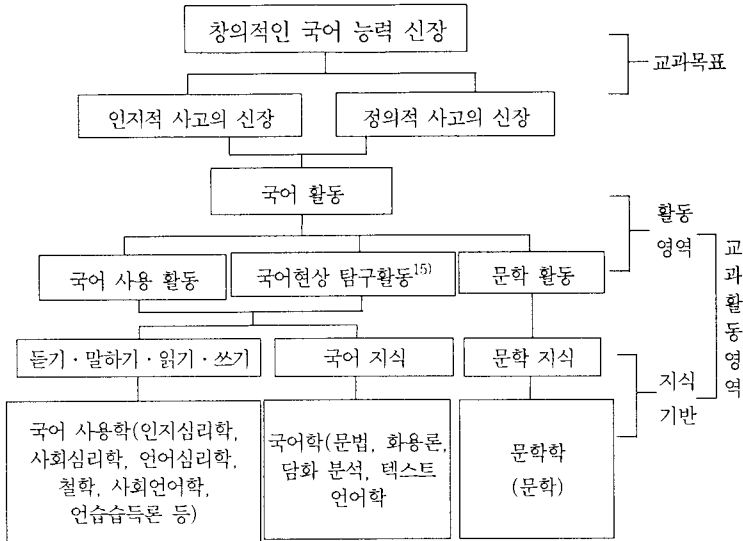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탐구 과정에 필요한 기능들 역시 사고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광해(1997/2001:118~121)에서는 탐구 과정을 인지 작용의 과정으로 보고 Beyer의 탐구 과정에 입각하여 탐구 과정에 요구되는 기능들을 위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¹³⁾ 탐구 과정의 '문제 정의하기'는 사고 기능의 '초점을 맞추는 기능'에 포함되고, '가설 설정하기', '가설 검증하기'에 필요한 기능은 '정보 수집, 조직, 분석 기능'에 필요한 사고 기능에, '결론 도출하기'에 필요한 기능은 사고 기능의 '분석 기능'에 포함된다. '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하기'에 필요한 기능 역시 사고 기능의 '평가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탐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능과 사고 기능 사이에 보이는 차이 역시 사고 기능과 읽기 기능의 차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국어과의 영역 체계

국어과 교육의 목표가 '국어 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국어 능력(사고 능력) 신장'에 있는 것으로 보면, 듣기·말하기·읽기·쓰기와 국어 지식, 문학 지식 영역은 단일한 상위 목표 아래 묶일 수 있다. '창의적인 국어 능력 신장'을 국어과의 본질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그 영역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3) Massisalas & Cox(1966)는 탐구의 개념을 어떤 사실과 가치의 문제를 그들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비추어 평가해 보고 일련의 평가 준거에 따라서 그러한 사실과 가치의 문제를 타당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이관규, 2001에서 재인용)

<국어과 목표와 영역 체계>¹⁴⁾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어과의 최상위 목표를 창의적인 국어 능력 신장에 두고 이것을 다시 인지적 사고의 신장과 정의적 사고

- 14) 이 그림에서는 국어 지식이 '국어 사용 활동'의 기반 지식이 될 수 있고 '듣기·말하기·읽기·쓰기'와 관련된 기능이나 지식이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될 수 있음을 실선의 연결하여 나타내었다.
- 15) 국어 지식 능력을 신장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가운데 하나인 탐구 활동만을 국어 지식 관련 활동 영역에 넣는 것을 납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정의적인 측면의 능력은 인지적인 측면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4.1.의 국어 지식 영역의 목표로 설정한 내용은 모두 탐구 활동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국어 지식 중에는 탐구 활동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그러한 지식은 국어 지식 영역의 고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어 사용 기능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국어 지식을 여기서는 국어 사용의 기반 지식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병규(2002)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한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과 관련한 지식도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4.3.에서 제시한 그림에서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 주기 위해 '실선'으로 연결해 주었다.

의 신장으로 하위 구분하였다. 인지적 사고에는 표현·이해력, 탐구력, 상상력 등이 포함되고 정의적 사고는 국어나 국어 사용에 대한 가치나 태도 등을 갖기 위해 필요한 사고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한글이나 세종 대왕, 주시경 선생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글의 우수성이나 세종 대왕, 주시경 선생의 업적을 알아야 한다. 한글이 다른 문자에 비해 어떤 점이 우수한지, 역사적으로나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알고 있어야 한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생긴다. 세종 대왕이나 주시경 선생은 다른 왕들이나 선각자들에 비해 어떤 점에서 존경할 만한지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한편 시나 소설을 잘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문학 작품을 통하여 우리 말과 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이론이나 지식으로 알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국어 체험을 통해 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시나 소설을 감상하는 바탕이 읽기 기능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 본다면 태도는 기능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기능과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노명완 외(2003: 245~246)에서는 가치관의 변화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한 대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변하면 그에 대한 신념이나 정의적 태도는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¹⁶⁾

이처럼 인지적 사고와 정의적 사고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국어과의 본질적인 목표를 창의적인 국어 능력(국어 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력) 신장에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여기에는 결국 국어의 발전, 국어 문화 창조,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한국인의 정체성과 유대

16) 이삼형(2000)에서는 인지와 정의를 이분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알고 따지기, 알고 느끼기, 알고 즐기, 느끼고 알기, 느끼고 따지기, 느끼고 즐기, 다지고 알기, 따지고 느끼기, 따지고 즐기, 즐기고 알기, 즐기고 느끼기, 즐기고 따지기 등은 정의 중심적 사고의 이해·표현 활동으로 인지와 정의가 함께 공존하며 작동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틀이라고 하였다.

감 함양 등과 같은 정의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은 국어 지식 교육의 국어과 교육적 가치와 성격을 밝혀 국어과 교육에서 국어 지식 영역의 정체성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또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에서 설정한 본질적인 목표와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제 목표, 내용 영역 사이의 모순점을 논의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어 지식 교육의 국어과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크게 무용론, 지식 기반론, 독자론, 포괄론으로 정리하였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어 지식의 성격을 밝혔다. 국어 지식은 국어 사용의 기반 지식,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결과, 국어 문화유산, 한국인의 정신세계 형성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논의했다. 이러한 국어 지식의 성격은 '창의적인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이라는 국어과의 본질적인 목표로는 모두 포괄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다음은 교육 과정에서의 국어과의 목표, 국어과 교육의 상위 목표와 영역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제5차~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문과 세 개의 하위 항목으로 이루어진 국어과 목표는 상위 목표와 모순되는 점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언어), 문학'의 6개 영역으로 대등하게 구분한 것 역시 상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아울러 제5차~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국어과의 목표와 영역 체계의 문제점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어 사용의 기반 지식,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결과, 국어 문화유산, 한국인의 정신세계 형성 수단이 되는 국어 지식은 모두 국어과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밝히고, 교육의 보편성과 교과 특성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국어과 교육의 목표로 '창의적인 국어 능력 신장(국어 활동을 통한 사고력 신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국어과의 상위 목표로 하는 국어과의 영역 체계를 확립하였다.*

* 본 논문은 2005. 2. 10. 투고되었으며, 2005. 3. 10. 심사가 시작되어 2005. 3. 2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교육부(1992), 『제6차 교육 과정 국민학교 교육 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2), 『제6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 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3), 『국민 학교 교육 과정(재판)』,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8), 『제7차 교육 과정 국어과 교육 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8), 『제7차 초·중등 학교 교육 과정-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8), 『제7차 초등 학교 교육 과정 해설』(Ⅰ), (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권재일(1995), 어학적 관점에서 본 언어 지식 영역의 지도의 내용, 『국어교육연구』2,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김광해(1997/2001), 『국어 지식 교육론』, 서울대 출판부.
- 노명완·박영목·권경안(1988), 『국어과 교육론』, 갑을출판사.
- 노명완·정혜승·옥현진(2003), 『창조적 지식 기반 사회와 국어과 교육』, 도서출판 박이정.
- 문교부(1987), 『국민학교 교육 과정』.
- 민현식(2002) 국어 지식의 위계화 방안 연구, 『국어교육』 108, 한국어교육연구학회.
- 박영목·한철우·윤희원(1996), 『국어 교육학 원론』, 교학사.
- 방인태(1999), “문화 생산 국어 교육”, 『국어교육』 100, 한국어교육연구학회.
- 손영애(1986), “국어과 교육의 성격과 내용 체계”, 『선청어문』 14·15, 서울대 국어교육과.
- 심영택(2003), “국어교육 목표에 대한 재조명”, 『어문연구』 제31권 제4호, 어문교육연구회.
- 양태식(1997), “초등 국어 교육의 성격과 과제”, 『한국어 교육』 12, 한국어문교육학회.
- 양태식(2001),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초등 국어 교육』 11, 초등국어교육연구소.
- 양태식·김정수(2004), “학습자용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국어 지식 내용 연구-초등 학생들의 이음씨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9, 한국어문교육학회.
- 우한용(1997),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 출판부.
- 윤종건(1996), 『창의력의 이론과 실제』, 원미사.
- 이관규(1998), “학교 문법의 내용 체계”, 『새국어교육』 56,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관규(2001), “학교 문법 교육에 있어서 탐구 학습의 효율성과 한계점에 대한 실증적 연구”, 『국어교육』 106,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문규(2001), “국어 지식 교육의 성격과 방향”, 『어문학 교육』 23, 한국어문교육학회.
- 이병규(2002-), “국어 지식 교육의 위상 재고”, 『초등 국어 교육』 12, 서울교대 국어교육 연구소.
- 이병규(2002-), “국어 지식의 성격과 국어 지식 영역의 목표”, 『한국어 교육』 17, 한국어문교육학회.

- 이병규(2004),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조직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새국어교육』 68, 한국 국어교육 학회.
- 이병규(준비중),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선정 방법 연구".
- 이삼형(2000), 『국어교육학』, 소명.
- 이성영(1995), "언어 지식 영역 지도의 필요성과 방향", 『국어 교육 연구』 2, 서울대 국어교육 연구소.
- 이용주(1995), 『국어 교육의 반성과 개혁』, 서울대 출판부.
- 이은희(1994), "언어 영역의 위상과 내용 선정 방식에 관한 연구", 『신청어문』 22, 서울대 국 어교육과.
- 최명옥(2003), 『국어실태지수 개발』, 문화관광부 연구 용역 보고서, 문화관광부.
- 최영환(1994), "언어 지식 영역의 목표와 내용", 국어학 연구, 『남천 박갑수 선생 화갑 기념 논 문집』, 태학사.
- 최영환(1995), "언어 능력 신장의 관점에서 본 언어 지식 영역의 지도 내용", 『국어교육연구』 2,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최현섭 외(1996/2001), 『국어 교육학 개론』, 삼지원.
- Thornbury, Scott(1999, 2nd. 2000), How to Teach Grammar, Longman.
- Bastone, Rob(1994, 1999), Grammar, Oxford Univ. Press.
- Ur Penny(1996, 2nd. 2002) A Course in Language Teaching: Practice and Theory, Cambridge Teacher Training & Development Series, Cambridge Univ. Press.
- Barry K, Beyer, 한면희 외 역(1988), Teaching Thinking in Social Studies, Using Inquiry in the Classroom, 『사회과 탐구 논리』, 교육과학사.

〈초록〉

국어 지식 교육의 성격과 국어과 교육의 영역 체계

이병규

이 글은 국어 지식 교육의 국어과 교육적 가치와 성격을 밝혀 국어 지식 영역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에서 설정한 본질적인 목표와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제 목표, 내용 영역 사이의 모순점을 논의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어 지식은 국어 사용의 기반 지식, 국어 현상에 대한 탐구 대상, 국어 문화 유산, 한국인의 정신세계 형성 수단이 된다. 이러한 성격의 국어 지식은 모두 국어과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밝히고, 현행 국어과의 본질적인 목표인 '창의적인 국어 사용 기능 신장'으로는 포괄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교육의 보편성과 교과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국어과 교육의 목표로 '창의적인 국어 능력 신장(국어 활동을 통한 사고력 신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국어과의 상위 목표로 하는 국어과의 영역 체계를 확립하였다.

【핵심어】 국어 지식의 성격, 국어 지식 영역, 상위 목표, 국어 능력, 국어과의 영역 체계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about the Korean Language and Area Org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as a Subject

Lee, Byoung-gyu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dentity of the area of the knowledge about the Korean language by discussing the value and the character of the knowledge education within the Korean language as a subject. A plan has been introduced to solve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original goal set by the Korean language and the authentic goal set by the national curriculum or its content areas.

Knowledge about the Korean language is basic knowledge for learners to improve their Korean language arts, searching aspects of Korean-linguistic phenomena, cultural heritage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spiritual aspect of being Korean. Here, I'm trying to demonstrate that the knowledge holds its educational value in the Korean language as a subject, and also show that the goal which is creative extension of the Korean language arts is not being fulfilled by all of knowledges about the Korean language. In this paper a new goal has been set to the creative extension of Korean ability(extension of thinking power through the Korean -linguistic activities), considering the universality of educ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subject. Also a new organization of areas within the Korean language as a subject based on this new goal has been established.

[key word] the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about the Korean language, the area of the knowledge about the Korean language, original goal, Korean ability, area org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